



## 비교구 사제들이 운영하는 독립형 본당을 위한 **One Parish Plan** 수립

“사제, 직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선교 목적으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폴 디 에티엔 대주교

에티엔 대주교는 서부 워싱턴에서 교회를 재구성하고 부흥시키는 큰 맥락에서 독립형 본당도 전략적인 사목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One Parish Plan을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동체 정신에 따라, 본당 생활에 참여하고, 듣고, 나누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복음 파트너의 중요한 요소는 복음화 노력과 자원 관리를 재평가하기 위해 모든 본당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독립형 본당에 대한 정통적인 변화 내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빛에 비추어 “시대의 표적”에 응답하기 위해 복음의 파트너로 모든 독립형 본당을 초대합니다.

비교구 사제들이 운영하는 독립형 본당(아래에서는 단순히 "독립형 본당"이라고 함)은 교구 전체에서 행하는 2회의 협의 행사를 포함하여 One Parish Plan의 특정 부분만 완료하면 됩니다. 비교구 사제들이 운영하는 독립형 본당은 관련이 없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섹션을 제외한 전체 One Parish Plan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각 독립형 본당에는 이 과정 동안 본당과 동행할 연락 담당자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각 단계에 참여할 사람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독립형 본당에 필수적인 계획의 요소가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 절차 개요

#### 조직 구성 및 착수 - [참고 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가능한 시작 시점: 2025년 1월 ~ 3월, 예상 소요 시간: 1 ~ 3개월)

작업을 위한 적절한 기반을 구축하려면 "조직 구성 및 착수" 섹션을 전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다수의 본당 가족에 대한 핵심 요소는 본당 가족 자문 위원회(PFAC)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당 가족이 하나의 정통적 본당이 되면 본당 가족 자문 위원회는 단일의 사목 평의회가 됩니다. 독립형

독립형 본당에 대한 지침 | 1

본당의 경우, 사목 평의회가 PFAC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재 본당에 사목 평의회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목 평의회를 구성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됩니다.

이 섹션의 필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제와 협의체**는 One Parish Plan 프로세스에 익숙해지고, 업무 일정을 결정하며, 외부 지원을 필요한 부분을 파악합니다.

### **우리는 누구인가요? [참고 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가능한 시작 시점: 2025년 4월 ~ 6월, 예상 소요 시간: 3 ~ 6개월)

“우리는 누구인가요?” 섹션에서 공동체 식별을 위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이 있습니까?
- 우리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1회 혹은 다수의 상담 세션에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은 사목 평의회에서 검토하고 종합한 다음 본당에 보고해야 합니다. 독립형 **본당은 이 섹션에서 한 번 이상 협의**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 **공동체 협의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누구이며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 “우리에겐 어떤 기회와 도전이 있습니까?” 워크시트를 작성합니다.
-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하고 본당 공동체에 다시 제공합니다.

###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요?**

(가능한 시작 시점: 2025년 10월 ~ 12월, 예상 소요 시간: 6 ~ 9개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요?”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는 본당에 비전 선언문과 이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가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당은 다음 질문에 대한 경청 세션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 선언문과 지원 이니셔티브를 알리기 위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요?” 질문. 사제, 직원, 사목 평의회는 공동체의 말을 경청하고 (성령님의 분별을 통해) 비전 선언문을 작성, 수정 또는 확정합니다.

독립형 본당의 사제와 협의체가 이러한 비전과 이니셔티브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노력을 식별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노력을 제거하고, 최종 이니셔티브 (신규 및 기존)를 수립하기 위해 효과적인 사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책임이 있습니다.

- **사제와 협의체**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누구이며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이 있습니까?”에 대한 토론 내용을 검토합니다.
- **사제와 협의체**는 비전 선언문이 없는 경우 이를 작성하고 복음화 및 재정 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제안합니다.

###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요?

(가능한 시작 시점: 2026년 7월 ~ 9월, 예상 소요 시간: 6 ~ 9개월)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요?" 단계에서는 사제, 직원, 사목 평의회가 최종 이니셔티브 목록에 대한 영향 분석을 완료하며 전략 계획이 최종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와 비전 선언문은 **두 번째로 필요한 공동체 협의 행사**에서 본당 공동체에 제시되어 의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피드백은 계획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사제와 협의체**는 이니셔티브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1회 이상의 실무 세션을 개최합니다. 그런 다음 각 이니셔티브의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합니다.
- 다음으로 사제는 **공동체 협의 행사**를 개최해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 사제와 협의체는 필요에 따라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를 공동체에 다시 제시합니다.

### 보고서 작성

(가능한 시작 시점: 2027년 4월 ~ 6월, 예상 소요 시간: 1 ~ 3개월)

독립형 본당은 두 가지 필수 협의 행사, 최종 비전 선언문, 이니셔티브의 결과를 최종적인 One Parish Plan으로 취합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는가에 대한 완전한 지침은 추후 제공. 이것들에 대한 마지막 검토 단계는 사제와 대주교 사이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 **사제와 협의체**는 최종 문서를 하나의 계획으로 취합합니다.

### 프로세스 검토

(가능한 시작 시점: 2027년 7월, 예상 소요 시간: 3 ~ 6개월)

최종 One Parish Plan을 One Parish Plan 검토 위원회에 제출하여 피드백을 받습니다.

- **사제와 협의체**는 One Parish Plan 검토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과 지시를 받습니다.
- **사제와 협의체**는 필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한다.
- 이어서 최종 One Parish Plan을 대주교에게 제출합니다.

## 요약

전체적인 One Parish Planning 프로세스는 모든 독립형 본당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교구 생활을 재구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립형 교구는 적어도 두 번의 협의 행사('우리는 누구인가?' 섹션과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섹션)를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독립형 본당은 에티엔 대주교와 만나 본당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자원을 관리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One Parish Plan을 발표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독립형 본당은 본당과 관련된 One Parish Planning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One Parish Plan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필수 협의 행사, 최종 비전 및 일련의 지원 이니셔티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